

공교육 활성화,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연계로부터

서인숙 |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위원장

교육은 연계성과 협력체계다. 교육과정의 연계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배우는 과목이나 과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 교육은 협력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관리자, 국가 등 모두 함께 한다. 교육에서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교육협력위원회가 나섰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사회적 협력기구다. 초·중등 교장선생님을 포함하여 대학 총장과 교육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교육문제, 고교-대학 간 연계와 협력 사항,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제안,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사항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학년, 학교 간 연계와 협력은 단계가 있다. 내 자녀만큼은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지나친 교육열은 초등학교 때부터 더 빨리 더 많이 배워 남보다 앞서가는 아

이를 만들기 위해 과열된 교육열과 조급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중학교 영어와 수학을 배우고 중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워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사교육을 통해 미리 배워 버린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로 인해 한 교실에서 학생들 간 진도가 다르고 수준이 달라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남보다 앞서려는 조급한 교육열은 자기 학년의 공부도 힘겨운 학생들에게 상급 학년의 공부를 시키고 있다. 이런 성급한 연계와 잘못된 협력은 공교육에 대한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교육협력위원회에서 1차 회의 때 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해서 과다한 스펙을 갖추도록 일부 사교육업체가 부추기는 데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으며 입학사정관들은 학교교육 내에서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었다고 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같은 자료라면 입시 자료로 변별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든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본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는 시간 때우기 봉사활동, 형식적인 진로활동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교육으로서 가치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학교에서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입학전형제도와 방식은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영향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관계되는 문제다. 중·고교 학생들은 대학 입시가 요구하는 대로 공부하려 한다. 대학전형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는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전공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면 수업시간에 수업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신의 대학전형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능교과에 포함되지 않는 수업시간에 억지로 참여해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교사들도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므로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줄고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길은 학생들의 교육 눈높이를 알고 맞추어 줄 수 있으면 된다. 국가의 교육과정이 학생 적성에 맞고 대학과 연계된 진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율학습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수업한 교과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예·복습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소수 상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일반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교사들의 참

여압력과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촉구하는 노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자율학습이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없이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에 학원을 찾아서 또 다른 공부를 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풀이를 한다면 그것은 타율학습이고 사교육 의존만 높인다.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자율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자율학습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교와 대학 간 연계 협력 방안 중 하나가 진학지도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진학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진학 가능학교에 대한 안내정보가 없다면 학생들은 사설 입시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성적으로 어느 대학갈 수 있을지 돈을 주고 알아보는 게 대세이다. 교사들의 진학지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더욱 사교육에 의존한다.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의 특성과 적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학정보와 직업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고교에서 진로지도 및 진학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잠재력 있는 학생이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가게 되고 고교와 연계한 대입제도에 내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교육문제 중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하여 초등 교육과정은 7개, 중·고등교육과정을 8개 교과군으로 줄이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 정규수업 때 공부할 과목수가 줄어들면 학습량과 평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학교 내신 교과목과 수능과목의 차이도 학습과다의 큰 이유였는데 교과군으로 구성하여 배울

과목수가 준다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인 이중 공부에 대한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다. 지금의 내신 따로 수능 따로의 교육이라면 학생들의 교육부담은 줄지 않는다.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결국 고교 따로 대학 따로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의 전형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와 대학은 입시제도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수능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그 기준에 맞춰 대학 갈 준비를 하도록 입시제도의 다양화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어떤 교육 정책이던지 시행한 뒤 반드시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된다면 늘 새로운 시도만 하고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다. 교육협력위원회가 출발하면서 목표했던 고교와 대학 간 연계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나 2009개정 교육과정들을 적용하면서 평가를 받는 교육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제대로 수업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교사가 열정으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학생들의 적극적 태도와 학습에 대한 의욕이 만나서 정규 수업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협력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교육은 교사가 노력한다고 학생이 공부한다고 학부모가 밀어준다고 해서 각각 애쓰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서로가 협력하여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조율해야 한다. 학생을 공부하게 하고 교사를 잘 가르치게 만드는 힘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이 입학사정관제도에서도 인정받는다. 스스로 노력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동기와, 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변화의식을 잊지 않도록 교육의 주체들을 일깨우자. 교육이라는 낱말은 명사이지만 ‘가르치고 배우다’로 풀면 동사가 된다. 교육은 움직일 때 힘을 발휘한다. 교육 발전을 위해 출발한 교육협력위원회가 정부와 교육 주체들과 협력하여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연계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큰 움직임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필 / 자 / 소 / 개

서인숙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서울 대표이며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전국조직 창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